

## 한문교육에서 보어의 처리 문제\*

李君善\*\*

### 目 次

1. 문제 제기
2. 한문과에서 보어 관련 논의 검토
3. 문장성분의 도치와 보어
4. 결론

### | 국문초록 |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문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는 목적어와 보어만 한 것이 없다. 본고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보어의 개념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도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보어의 개념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어순을 대상으로 하였지 도치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어순의 경우에는 맞고 문장성분이 도치되었을 때에는 맞지 않는다면 그 정의는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인 정의가 맞으려면 그 역도 성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술어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리를 바꾸면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되지만 보어의 경우는 부사어로 문장성분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도치의 관점에서 보면 ‘보어’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와 같이 도치가 되며 그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따라서 문장성분의 도치와 관련하여 적어도 학교문법의 경우에는 보어를 다른 방식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 이에 본고는 ‘보어’를 없애고 ‘보어’와 ‘목적어’를 합하여 ‘목적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漢文科 教育課程, 目的語, 補語, 倒置, 語順, 文章成分, 學校 文法.

## 1. 문제 제기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문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는 ‘목적어’와 ‘보어’만한 것이 없다. 그간 학계는 목적어와 보어의 개념에 대한 논의<sup>1)</sup>부터 보어가 꼭 필요한 문장성분인가<sup>2)</sup>의 문제에 대하여 개념을 검토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목적어’·‘보어’와 관련하여 꾸준히 연구하였다. 한문과에서 보어 문제는 송병렬 교수의 『한문과 한문 문법에 대한 제고』가 그 단서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통일된 학교 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한문교육학회와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는 학교 문법 연구팀을 조직하여 학교 문법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목적어’·‘보어’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07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자 양 학회의 연구 성과를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연구진에서 수용하여 교육과정해설서에 담아내었다.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문법의 문장성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빈어’였다.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有’와 ‘無’를 ‘빈어’를 취하는 동사’로 처리하였고, 기존의 목적어에 목적지를 나타내는 명사까지 포함하여 ‘빈어’라는 용어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서술어 뒤에 오는 명사 성분을 보어로 처리하였는데 빈어라는 생소한 용어의 사용 및 빈어와 보어의 개념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2009년 개정 한

1) 정만호(2004), 정순영(2008), 공민식(2017).

2) 송병렬(1996), 김성중(2012).

문과 교육과정에서 다시 기존의 ‘목적어’·‘보어’로 회귀하고 말았다. 그나마 한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有와 無를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취급한 것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본고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보어의 개념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보어에 관한 논의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정리되고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문법은 이론만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에 해당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문장을 가지고 따져보는 작업은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부분 보어의 개념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정상적인 어순의 경우만 살펴보았지 이들이 자리를 바꿀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목적어·보어를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다보니 그 역도 성립되는 것인지 따져보지 못했던 것이다. 정상적인 어순의 경우에는 맞고 문장성분이 도치되었을 때에는 맞지 않는다면 그 정의는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인 정의가 맞으려면 그 역도 성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예외가 없는 문법은 드물겠지만 예외가 많다면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목적어 보어의 개념이 문장성분이 도치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한문이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일정한 시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가르칠 문법은 최소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문의 본령은 문장에 대한 읽기와 풀이, 그리고 감상이기 때문이다.

## 2. 한문과에서 보어 관련 논의 검토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문과에서 보어 관련 논문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다룬 논문은 송병렬, 정순영, 김성중, 공민식의 논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만호의 논문은 학교 문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송병렬은 그의 논문에서 서술어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문은 동사와 형용사에 이어 명사까지도 서술어로 사용된다. 이때 형용사와 명사는 아무런 형태의 변화가 없이 서술어(상태동사)가 된다.”<sup>3)</sup>라고 하고 “서술어 뒤에 쓰이는 명사성의 단어들은 기존의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여 ‘명사어’로 쓸 것”<sup>4)</sup>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한문과 문법의 문제를 한문 문장 자체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하지 말 것을 의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도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하지 말자는 의견에 찬성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도치의 관점에서 보면 목적어와 보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명사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순영의 논문은 김성중이 이미 정리하였으므로<sup>5)</sup> 다시 정리하지 않는다. 다만 ‘有罪’를 설명하며 ‘有’에 대하여 『국어사전』의 사전적 풀이를 제시하고 ‘有’를 형용사로 분류하며 ‘소유가 오래되면 존재가 되는 것이며, 존재는 상태인 형용사다.’<sup>6)</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문장 성분의 도치와 연관하여 볼 때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성중은 보어에 대하여 한문과 교육과정, 국내 학자의 연구, 중국학자의 견해로 나누어 검토하고 보어 개념 상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말하였다. 김성중은 먼저 한문과 교육과정의 서술어와 목적어 보어에 대한 서술을 검토하며 “한문에서 객체 목적어도 취하는 동사, 즉 타동사와

3) 송병렬(1996), 10쪽.

4) 송병렬(1996), 18쪽.

5) 김성중(2012), 638쪽.

6) 정순영(2008), 161쪽.

객체 목적어는 취하지 못하는 동사 즉 자동사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sup>7)</sup>는 점과 문장 성분의 도치와 관련하여 볼 때 “한문 문법 서술 체계에 있어 모순이 발생한다.”<sup>8)</sup>는 점을 들며 “교육과정의 서술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sup>9)</sup>고 하였다. 이어 송병렬, 정만호, 정순영의 논문을 검토하고 중국학자의 견해를 살피며 “보어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고 각 주장에는 일정 정도의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보어란 무엇인가? 한문에 과연 보어가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sup>10)</sup>고 하였다.

김성중은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한문 문법에서 한문을 좀 더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해 동사 뒤의 명사성 성분 및 유관 언어 현상을 세밀히 나누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학교 문법의 각도에서 보자면 실제 한문 독해력 신장과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문법을 위한 문법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보어라는 개념이 일반 언어학 측면에서 볼 때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문 문법 체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춘추전국시기의 언어 현상을 분석하는데 큰 효용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보어라는 개념을 한문과 학교 문법 서술에 계속 제시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목적어와 보어를 하나로 통일하여 목적어라는 개념을 쓰는 방안, 혹은 다른 용어, 예컨대 ‘客語’를 상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학교 문법 서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목적어와 보어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제시한 것이

7) 김성중(2012), 635쪽.

8) 김성중(2012), 636쪽.

9) 김성중(2012), 637쪽.

10) 김성중(2012), 640쪽.

11) 김성중(2012), 650쪽.

다. 본고는 김성중의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집필 동기가 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客語’는 ‘빈어’가 학교 현장에서 생소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시 ‘목적어’로 환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현행의 ‘목적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공민식은 보어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은 교과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언어 탐구 과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히 보어의 개념과 특성을 확정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sup>12)</sup>라고 하고 ‘君子敏於事’를 예로 들어 설명한 뒤 “만약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문장 성분에 관한 다양한 문법 지식을 한문 독해에 활용한다면, 예로 든 문장에서 ‘於事’를 목적어로 보았을 때, 보어로 보았을 때 그리고 부사어로 보았을 때 그 미묘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한문 독해력 향상은 물론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까지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sup>13)</sup>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한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어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문장을 풀이하고 이해할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하여 문법을 전공하는 연구자도 명확한 개념을 내놓지 못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꼭 가르칠 필요가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 설령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한문과의 상황이 그럴만한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문장과 문법에 대한 이해는 국어나 다른 언어를 다루는 영역에 맡겨두고 한문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읽고 풀이하고 감상하기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공민식은 또한 ‘보어의 도치’라는 개념을 들며 “보어 도치를 학교 문법 용어로 특정 짓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의미 강조를 위한 도치’라는 항목으로 교수학습요소로 구성

12) 공민식(2017), 264쪽.

13) 공민식(2017), 264쪽.

하는 것도 대안이다.”<sup>14)</sup>라고 하였는데 보어의 도치이든 의미 강조를 위한 도치이든 문장 성분이 도치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중이 “朝者曰, ‘公焉在?’ 其人曰, ‘吾公在壑谷.’”을 예로 들어 설명하며 “在는 일반적으로 객체목적어를 취하지 않기에 타동사가 아니므로 ‘在+명사성 성분’인 ‘在壑谷’은 술보구조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公焉在’는 의문 대명사가 보어일 때 도치된 것으로 분석해야 하고 이럴 경우 목적어 도치 외에 ‘보어 도치’라는 새로운 문법 사항을 상정해야 한다.”라고 하며, 한문에서 ‘보어 도치’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논저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sup>15)</sup> 본고의 생각도 이와 같다. 학교 문법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법에 관해 세분화하여 가르치다보면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 3. 문장성분의 도치와 보어

여기에서는 먼저 ‘有’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보아야 하는지 ‘보어’를 취하는 동사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문장 성분의 도치를 적용했을 때 보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교육과정의 ‘술목 관계’와 ‘술보 관계’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술목 관계는 서술어와 목적어(目的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예:有, 無)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 목적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목 관계의 단어는 어순(語順)이 우리말과 다르다. 술보 관계는 서술어와 보어(補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

14) 공민식(2017), 277쪽.

15) 김성중(2012), 637쪽.

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준다.<sup>16)</sup>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有’와 ‘無’가 소유를 나타내고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바뀐 것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부터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말 풀이와 관련하여 ‘有’와 ‘無’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문 문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풀이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한문 자체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송병렬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문은 한문 자체로 보아야 한다. 그 문장 성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한문의 특징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sup>17)</sup>

기존의 문법서 및 문법 연구 논문을 보면 번역을 고려하여 문법을 다룬 경우가 많다. 송병렬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문의 문법이 한문 교유의 문장을 통해서 한문 문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번역을 알고 난 뒤에 번역된 우리말을 통해서 문법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sup>18)</sup>라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有’이다. 문장의 구조상 ‘有’ 앞에 오는 것이 주어이고 뒤에 오는 성분은 목적어이다. 국어사전의 풀이를 가지고 ‘有’를 형용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sup>19)</sup> ‘有’는 동사로 파악해야 옳다. 문장성분의 도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有’는 동사이다.

未之思也, 夫何遠之有.(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대체로 (생각한다면) 무슨

16) 교육부(2015), 7쪽.

17) 송병렬(1996), 16쪽.

18) 송병렬(1996), 11쪽.

19) 정순영(2008), 160쪽.



먼 것이 있겠는가?)

- 『논어』

宋何罪之有.(송나라에 무슨 죄가 있는가?)

- 『목자』

이 문장에서 ‘何遠之有’와 ‘何罪之有’는 문장 성분이 도치된 경우이다. 원래의 형태라면 ‘有何遠’과 ‘有何罪’이고 ‘何遠(무슨 먼 것)이 있겠는가?’ ‘何罪(무슨 죄)가 있겠는가?’로 풀이해야 한다. 이는 ‘之’를 이용하여 목적어를 도치시키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何遠’과 ‘何罪’는 ‘有’의 목적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의 경우도 ‘有’를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파악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其爲人也孝弟，而好犯上者鮮矣。不好犯上，而好作亂者，**未之有也**。(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고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무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亂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다.)

- 『논어』

老者衣帛食肉，黎民，不飢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늙은 자가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젊은이가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고서도 왕노릇 하지 못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 『맹자』

‘未之有也’에서 ‘有’는 서술어이고 ‘之’는 지시대명사로 문장 성분이 도치되는 일반적인 경우의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어순대로라면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하므로 ‘未有之也’이다. 이렇게 도치의 관점을 적용해 보면 ‘有’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보아야 한다.

또한 현행의 규정대로라면 ‘보어’에 해당하는 서술어 뒤의 명사성 성분이 도치의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적어도 이들은 도치의 상황에서는 ‘목적어’이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육과정의 ‘술목 관계’와 ‘술보 관계’에 대한 서술은 달라져야 한다.

서술어와 목적어가 도치되는 경우에 대하여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2한문 I 02 - 02] 한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볼 때는 제일 먼저 어순(語順)을 보고, 그 다음에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어순이 바뀌면 비문(非文)이 되거나 문장의 성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한문의 문장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어순이 도치되어도 문장의 성분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술목 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뒤에 놓인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 곧, 의문(疑問)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構文)에서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에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또 한문은 문장 안에서 중복을 피하거나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문장 성분의 생략은 앞 뒤 문장을 살펴보고 생략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sup>20)</sup>

교육과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목적어가 도치되는 경우는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이다.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에서는 ‘술어와 목적어의 도치’에 대하여 교육과정보다 도치되는 예를 세분하여 1) 부정문에서 대체사 목적어가 도치되는 경우에 (1) 부정부사 ‘不’ ‘未’ ‘弗’ ‘無’ 등이 있는 부정문과 (2) 무지 대체사 ‘莫’이 주어로 쓰인 부정문의 경우를 두었고, 2) 의문문에서 대체사 목적어가 도치되는 경우와 3) 구조조사 ‘之’ ‘是’ ‘焉’ ‘斯’ 등의 표지가 있는 문장에서 동사 목적어가 반드시 도치되는 경우, 그리고 4) 목적어를 강조하고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조건 없이 그것을 동사 앞으로 끌어가는 경우<sup>21)</sup>

20) 『한문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31쪽.

21)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문법의 분석적 이해』(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술목 관계에서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예: 有, 無)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되며 술보 관계에서 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준다.”라고 하여 타동사와 ‘有, 無’만을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보았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의문대명사가 쓰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문장 성분이 도치되어 의문대명사가 서술어 앞에 놓인다.

天下惡乎定?(천하가 어디에서 안정될 것인가?)

- 『맹자』

이 문장은 일반적 한문의 어순대로라면 ‘天下定乎惡’으로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惡’의 문장 성분은 보어일 것이다. 그러나 ‘定’과 ‘惡’가 자리를 바꾸었으니 이는 도치의 조건인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惡’는 ‘보어’가 아닌 ‘목적어’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乎惡’이다. ‘개사+명사’는 교육과정에 ‘보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개사+명사’의 문장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의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君子去仁, 惡乎成名?(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디에서 이름을 이룰 것인가?)

- 『논어』

‘惡乎成名’은 ‘成名乎惡’가 도치된 것이다. 여기에서 ‘목적어’는 ‘名’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乎惡’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보어’인데 도치의 조건과 연결해서 보면 이는 ‘목적어’이다. 따라서 ‘개사+명사’의 문장 성분 역시 목적어로 보아야 앞 뒤 설명이 맞게 된다. ‘개사+명사’ 성분이 서술어 앞으로 간다고 해도 그 성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로 보아야 목적어의 도치로 설명할 수 있다.

天下之尊，莫我若也.(천하의 높은 것 중에 나만 같은 것이 없다.)

- 『어우야담』

文風之不雅，莫我東若也。文體之日喪，莫近日若也.(문풍이 전아하지 못함이 우리나라만 같은 것이 없고, 문체가 날로 손상됨이 요즈음과 같은 때가 없다.)

- 『여유당전서』

今余遭有道，而違於理，悖於事。故凡爲愚者，莫我若也.(지금 나는 도가 있는 세상을 만나서 도리에 어긋나고 일에 거슬렸다. 그러므로 모든 어리석은 이 중에 나만큼 어리석은 이는 없는 것이다.)

- 『柳河東集』

世路知君，莫我如.(세상에 그대를 아는 사람 나만 같은 이가 없다.)

- 『虛白亭文集』

이 문장의 ‘莫我若也’ ‘莫我東若也’ ‘莫近日若也’ ‘莫我如’에서 ‘我’와 ‘我東’ ‘近日’은 모두 도치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若’과 ‘如’는 형용사인 데 여기에서는 품사가 활용되어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쓰였다.<sup>22)</sup> ‘상태’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보어’이다. 따라서 교육과정대로라면 ‘我’와 ‘我東’ ‘近日’은 보어이다. 그러나 도치의 관점에서 보면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에서 제시한 도치 조건인 “(2) 무지 대체사 ‘莫’이 주어로 쓰인 부정문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목적어’이다.

22) 송병렬(1996), 10쪽. “한문은 동사와 형용사에 이어 명사까지도 서술어로 사용된다. 이때 형용사와 명사는 아무런 형태의 변화가 없이 서술어(상태 동사)가 된다.”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그래야만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였을 때 목적어의 도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은 ‘莫’이 사용되었지만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謂他人昆, 亦莫我聞.(타인을 형이라 이르나 또한 나에게 (소식을) 알리지  
않도다.) - 『시경』

교육과정대로라면 이 문장에서 ‘我’는 보어이다. 목적어인 ‘소식’이 생략  
되었기 때문이다. 보어가 도치되면 부사어가 되는데 이를 도치의 관점  
에서 보면 도치의 조건인 “(2) 무지 대체사 ‘莫’이 주어로 쓰인 부정문의 경  
우”에 해당하므로 목적어가 된다.

自謂農圃之不如, 則拒之者至矣.(스스로 농포만 못하다고 일렀다면 거절  
한 것이 지극한 것이다.) - 『논어』  
汝真狗彘不若.(너는 진실로 개돼지만 못하다.) - 『매천야록』

이 문장은 위에서 제시한 도치 조건의 3) 구조조사 ‘之’ ‘是’ ‘焉’ ‘斯’ 등  
의 표지가 있는 문장에서 동사 목적어가 반드시 도치되는 경우에 해당한  
다. 정상적인 한문의 어순대로라면 ‘不如農圃’ ‘不若狗彘’가 될 것이고 ‘農  
圃’와 ‘狗彘’는 ‘보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치의 관점에서 보면  
‘農圃’와 ‘狗彘’는 목적어를 도치시키는 조건과 맞으므로 ‘목적어’에 해당  
한다.

帝王富貴, 皆不我如.(帝王의 부귀가 자기만 못하다고 여겼다.)  
- 『통감절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에  
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는 조건과 맞는다. 따라서 문장 성분의 도

치 관점에서 보면 ‘我’는 보어가 아닌 ‘목적어’이고 ‘如’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何必公山氏之之乎?(하필이면 공산씨에게 가십니까?) - 『논어』

이 문장이 한문의 어순대로라면 ‘何必之公山氏乎’가 될 것이다. 그러나 ‘公山氏’를 강조하기 위하여 ‘之’를 사용하여 도치시킨 형태이다. ‘之’ 다음에 오는 ‘公山氏’는 교육과정에서 ‘보어’로 취급하는데 도치의 관점에서 보면 ‘公山氏’는 목적어가 된다.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牛何之?(소가 어디로 가는가?) - 『맹자』

先生將何之?(선생은 장차 어디로 가시렵니까?) - 『맹자』

吉行 日五十里, 師行 三十里, 朕乘千里馬, 獨先安之?(길행은 하루에 오십 리를 가고 사행은 삼십 리를 가니 짐이 천리마를 타고 홀로 먼저 어디로 가겠는가?) - 『통감절요』

이는 도치의 조건 중 ‘疑問의 뜻을 나타내는 構文에서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에 해당한다. 위의 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之’ 다음에 오는 문장성분은 ‘보어’인데 여기에서는 ‘목적어’로 쓰인 것이다.

다음 문장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글이 나온 맥락을 먼저 제시하고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백제가 대량주를 공격하였을 때 김춘추의 딸이 남편을 따라 죽자 김춘추는 고구려에 원병을 청하여 원한을 갚고자 하여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 처음에 고구려는 김춘추를 융성하게 대접하였는데 고구려의 형세를 살펴려고 왔을 것이라는 혹자의 모함이 있자 김춘추에게 이치에 어긋난 질문을 하여 그것을 빌미로 욕을 보이려 하였다. 그래서 “마목현과 죽령은

본디 우리나라 땅이니 만약 우리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하리라.(麻木峴與竹嶺, 本我國地, 若不我還, 則不得歸.)”<sup>23)</sup>라고 하였다. 여기에 쓰인 문장이 바로 이 부분이다.

若不我還, 則不得歸.(만약 (마목현과 죽령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 『삼국사기』

문장의 형태를 보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에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는 조건에 맞는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我’는 이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다. 이 문장의 ‘목적어’는 ‘麻木峴與竹嶺’이고 ‘我’는 ‘보어’이다. ‘보어’가 도치되면 ‘부사어’가 되어야 하는데 ‘我’의 상황은 ‘목적어’의 도치 조건과 맞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我’는 ‘목적어’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徐君已死, 尙誰予乎?(서군이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 『몽구』

이 문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誰予’는 ‘疑問의 뜻을 나타내는 構文에서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도치된다는 조건에 맞게 ‘誰’가 의문대명사이고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予誰’를 도치시킨 것이다.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나왔다. 계찰이 북쪽으로 사신 갈 적에 서군에게 들렀는데 서군이 계찰의 보검을 탐내자 서군의 마음을 알아챈 계찰은 서군에게 보검을 주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신으로 가야 했기에 그 자리에서 주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려고 했다. 그러나 서군이 이미 죽어서 직접 주지 못하게 되자 계찰은 서군의 무덤에 그 보검을 걸어두었다. 이때

23) 『원본 삼국사기』, 『列傳第一 金庾信上』, 한길사, 1998, 431쪽.

종자가 한 말이 이 문장이다. 그렇다면 ‘誰予’에서 ‘목적어’는 생략되었지만 ‘보검’이고 ‘誰’는 ‘보어’가 된다. 그러나 설명처럼 ‘誰’가 도치된 것을 보면 ‘誰’는 ‘목적어’로 보아야 하지 ‘보어’가 아니다.

嘗欲合孝雅義鵠之類, 爲一路全史, 姑未之及矣.(일찍이 효성스런 까마귀와 의로운 닭의 종류를 합하여 일로전사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 『星湖僊說』

이 문장에서도 ‘之’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에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는 조건과 맞으므로 ‘목적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밑줄 친 한자의 문장 성분은 교육과정대로라면 ‘보어’이다. 그러나 문장성분의 도치와 관련하여 도치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모두 ‘목적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목적어’는 문장 성분이 도치되어도 그 성격이 변하지 않지만 ‘보어’는 서술어 앞으로 도치되면 ‘부사어’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시한 것들을 ‘부사어’라고 할 수 없다.

‘개사+명사성 성분’ 구조 역시 앞에 있든 뒤에 오든 그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김성중이 이미 논의<sup>24)</sup>하였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는다.

#### 4. 결론

문법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가뜩이나 문법하면 머리를 아

24) 김성중(2012), 646쪽.



파하는 학생들에게 문법을 강조하다보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주 내용이 부수적인 것에 치일 수 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학교문법은 문법을 최대한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문장의 성분을 따지다 보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동사가 같은 글자로 이루어졌음에도 동사의 성격에 따라 목적어와 보어로 나뉘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치의 관점에서 보면 보어가 목적어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는 학자들이 정밀한 문법을 위해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문법 학자들도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구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한문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한자를 알고 문장을 풀이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 밖의 것은 이것을 수행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현행 교육과정의 ‘보어’에 대한 정의는 한 번 더 생각해볼 일이다. 일반적으로 서술어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리를 바꾸면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되지만 보어의 경우는 부사어로 문장성분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어’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와 같이 도치가 되며 그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따라서 문장성분의 도치와 관련하여 적어도 학교문법의 경우에는 보어를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개사+명사성 성분’은 서술어 뒤에서 개사와 결합한 명사는 보어로 처리해도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순이 도치되어도 문장의 의미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술어의 앞에 위치하면 부사어이고 서술어의 뒤에 위치하면 보어라는 서술과 잘 맞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보어’와 ‘목적어’를 합하여 ‘목적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문법적 정합성도 맞다. 문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현행 보어의 개념을 살려두고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한문 교육 현장과 한문의 상황을 본다면 보어를

목적어에 포함시켜 다루어 문법적인 혼란을 줄여야 한다. ‘목적어’와 ‘보어’를 합하였을 때의 용어는 ‘목적어’가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목적어의 개념을 넓혀 목적지를 나타내는 명사까지 합하여 ‘빈어’라는 용어를 써서 포괄하려고 하였는데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여 다시 목적어라는 용어로 복귀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교육부, 『한문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문법의 분석적 이해』,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 『원본 삼국사기』, 『列傳第一 金庾信上』, 한길사, 1998, 431쪽.
- 공민식, 『한문과 학교 문법의 보어 특성 고찰』, 『한문학논집』47, 근역한문학회, 2017.
- 김성중, 『한문 문법에서의 보어 개념 재고』, 『한자한문교육』2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 송병렬, 『교과서 한문 문법에 대한 재고』, 『한문교육연구』10,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 정만호, 『빈어와 보어의 구분에 관한 소고』, 『한문교육연구』2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 정순영, 『중학교 한문과 “한문지식영역”에서 한문문법의 문제』,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투고일 2018. 1. 28 심사시작일 2018. 2. 19 게재확정일 2018. 3. 12

*Abstract*

## The Issue of How to Cope with Complement in Sino-Korean Education

Lee, Goon-seon

In the Sino Korean subject curriculum, there is nothing other than the object and complement that have not yet been clarified and have been divided into opinions regarding grammar.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the concept of complement presented in the current curriculum is appropriate in terms of inversion. So far, most of the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complement have focused on the normal word order, and have not looked at inversion in detail. If it is right in the case of a normal word order, but when sentence constituents are inverted, it is wrong, then the definition must be wrong. The opposite must be true for a general definition to be true. Generally, the noun after the predicate is object or complement. However, if they change their positions, the object becomes an object as it is, but in the case of complement, the sentence constituent changes as an adverb.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inversion, it is inversion like 'object' despite being 'complement'. That is, the feature actually does not change. Thus, in relation to the inversion of the sentence constituents, at least in the case of school grammar, it is correct to set the complement in a different way. Hence, in this study, we think it is desirable to eliminate 'complement' and combine 'complement' and 'object' to form another term 'object'.

**Keywords**

Sino Korean subject curriculum(漢文科 教育課程), object(目的語), complement(補語), inversion(倒置), word order(語順), sentence constituents(文章成分), school grammar(學校文法).

